

허공같은 부처...모양에서 찾지 말라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즉시 법체(法體)와 어
긋나고,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어리석은 이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순간, 생사에
함몰되고 만다. 중생의 한 생각 한 생각은 생명의 반복이
어서, 무명(無明)에 뒤덮여 본질을 잃는다. 이것은 금생의 일만
이 아니다.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던 것이다.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면, 어느 날 홀연히 마음의 눈을
뜨는 기회를 가진다. 그렇게 전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갔
을 때, 비로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것
이다.

또한 중생은 공부를 하면 만사형통 원하는 바가 다 이
루어지는 줄 착각한다.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것과 다
를 바 없다. 표주박은 물결이 일면 이는 대로 덩달아 흔들
리고, 물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다. 이미
지어놓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표주박과 같
이 흐름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내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
래야 세세생생 어둠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시(無始) 이래로 모양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육도만행
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례(次第)를 두는 것
이다.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 차례를 밟은 부처란 없다.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서 부처를 찾
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
하여,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삼매야말로,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다.
육도만행은 여섯 가지 수행으로 육바라밀이라고도 한

수불 스님의 전심법오 선해 <5>



다. 이 여섯 가지를 잘 닦아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
체가 곧 차제라는 말이다. 차제란 일종의 차등과 단계 등
의 뜻이다. 따라서 덜 닦은 사람, 모두 닦은 사람 등 차별
을 두게 된다. 이는 원래 비어서 닦을 것이 없는 부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어쨌든 난행, 고행 끝에 부처가 된다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한 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먼저 점
점 나아지는 차례를 두고 점차(漸次)를 보여줘서 믿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방편은 마침내 시절이연
이 도래하였을 때,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부처였음을 자각
토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부처란 모양이 없기 때문
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평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한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
이 없으니, 이야말로 창된 부처다.

이런 말은 공부한 사람들 간에는 소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들
에게 먼저 화두 들고 의심하게 해서, 눈앞의 은산철벽(銀
山鐵壁)을 깨뜨리게 해야 한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한 마음으로 다를 바가 없다. 허공
과 같아서, 잡됨도 무너짐도 없다. 마치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

허공은 그 자체가 너무 맑고 투명하여 온 누리를 비추
는 햇살같이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허공, 현재 허공, 미래 허공이 따로 있지 않다.
동쪽 허공, 서쪽 허공도 따로 있지 않다. 허공은 투명하여
본래 색이 없지만, 인연 따라 이런저런 구름의 모양이 만
들어질 뿐이다. 만일 그 모양에 집착하면, 구름의 실체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 그것을 즉시 깨닫고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본래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잡어지고 있으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
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잡어지고 가라고 한다. 젊
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된
다. 그때, 내려놓고 어두움에 관계없이 마음을 쓸 줄 아는
방법을 확인했으면 그만이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일
찍이 밝은 적이 없다. 해가 저서 온 천하가 어두워질지라
도, 허공은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다.

허공 스스로는 밝아지거나 어두워진 적이 없듯이, 사
람의 마음이 밝거나 어두움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인연 따
라서 밝아지거나 밝아진 것이고, 어두워지거나 어두워진
것일 뿐이다. 밝음에 더 이상 머무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밝음과 어두움에 관계없이 마음을 쓸 줄 아는
방법을 확인했으면 그만이다. **범어사 주지**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55



이 보살마하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공양하는 것이 된다

(마하반야바라밀경) 삼탄품(三歎品)

그렇구나, 과연 부처님이다. 이렇게
일찍이 다 일러두셨구나. 정말로 중생들
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고 다 보신다고 하시더니, 과연
그렇구나. 부처님과 중생들 사이의 대화
가 떠오른다. 먼저 중생들이 항변하고,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다독여주시니.

중생의 항변

부처님, 우리 중생들은 누가 뭐라 하
든, 오직 한 길로 부처님 당신을 향해서
위로, 위로만 올라가는 한 길을 걸어가
고 있음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는지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 중생들은 오직 당
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
함을 당신께서는 일찍부터 아시고 계셨
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
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마치 동

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불순하
게 보이시는지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
시는지요? 당신께서 우리 중생에게 내
리시는 명령이라든 그 무엇이라도 다
따를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눈길
을 다른 데 돌리라는 그 말씀만은 차마
따를 수 없나이다. 제발 그 말씀만은 거
두어 주셔서, 가혹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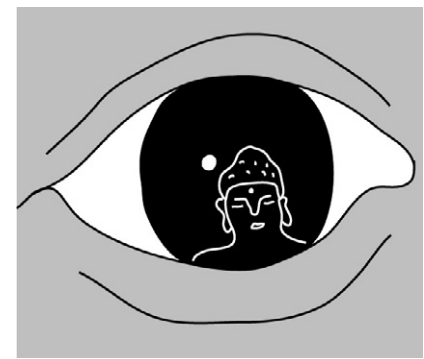
부처님의 대답

그래, 이 어리석은 중생아, 내 그대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
면서, 나를 나로만 보느냐? 어찌하여 나
를 나에게서만 찾느냐? 내가 어디에 있
더라 말인가? 네 몸만 나이고, 내가 사
는 집만 나이고, 내가 설한 말씀만 나의
말씀이더냐?

내 사랑하는 그대들 모두 다 내가 아
니더냐. 내 길을 따라서, 나를 그리워하
면서 내가 간 길을 따르는 저 제자들, 저
아들, 딸들 다 내가 아니더냐. 나에게
고귀한 공양을 올려서 내 배를 부르게
할 줄 알면서 어찌 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딸, 아들들에게는 공양할 줄
모르느냐. 어찌 그들이 배가 고프지 아
른지는 관심조차 없더라 말인가? 그들
이 어찌 내가 아니란 말이더냐.

어리석은 제자들이여, 나는 나만 내가
아니다. 나 아닌 모든 것들도 다 나이다.
나에게 내가 아닌 존재는 없다. 더욱이
그들이 나의 길을 따르고, 나의 가르침
을 펼치려고 마음을 발했다면 더욱더
내가 아니겠는가.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들고자
한다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오.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젊은이들, 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구원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보호할지이다. 그들이야말
로 보살마하살의 길에 들어선 나의 후
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고서,
어디 내가 있기에 그대들은 그 젊은이
들을 외면하고서, 그들의 고뇌나 고난에
는 눈을 감고서 내게로만 달려온 말
인가. 그대들이 나의 길을 따르는 젊은
보살마하살들을 잘 보살필 때, 그런 인
재들이야말로 보시를 할 때, 그런 인재들
이 공양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보
시를 하는 것이고 나를 공양하는 일이
될 것이니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어린 얼룩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주위의 다른 어린
동물도 눈에 띄지 않고, 오직 얼룩말만
이 보였던 것처럼, 마치 화살표가 직선
으로 날아가듯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줄 당신께서는 또 어떻게 아셨는
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직선
나로(走路)만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선분(線分)만이 그려져 있
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 님과
나 그렇게 단 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
떤 존재도 우리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
습니다. 끼어들 수 있다면, 그것들은 다
불순한 것들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바로 그렇게 당신
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당신
을 향해서 노래부르는 것 그 외에는 아
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마치 당신을
향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증거라도 하
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부처님
이시여, 왜 무엇이 못마땅하신지요? 당

말의 왕국에서 사자가 어린 얼룩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주위의 다른 어린
동물도 눈에 띄지 않고, 오직 얼룩말만
이 보였던 것처럼, 마치 화살표가 직선
으로 날아가듯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줄 당신께서는 또 어떻게 아셨는
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직선
나로(走路)만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선분(線分)만이 그려져 있
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 님과
나 그렇게 단 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
떤 존재도 우리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
습니다. 끼어들 수 있다면, 그것들은 다
불순한 것들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바로 그렇게 당신
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당신
을 향해서 노래부르는 것 그 외에는 아
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마치 당신을
향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증거라도 하
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부처님
이시여, 왜 무엇이 못마땅하신지요? 당



주성원의 기초 교리 <50>

대승불교의 수행도-육바라밀(六波羅蜜)

초기불교의 수행도는 삼십칠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
고 자신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
행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이르러 수많은 수
행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참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예컨대 강을 가는데 두고 이쪽 강 언덕을 생사윤회(生死輪
廻)하는 세속의 세계라고 하고 저쪽 강 언덕을 생사윤회로
부터 벗어난 출세간(出世間)의 세계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
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大乘]를 타고 모두와 함께 건너
려는 것이 대승의 수행도이다. 이와 같이 이쪽 언덕[此岸]
에서 저쪽 언덕[彼岸]으로 건너가는 것을 불교원전의 언어
인 범어로는 파라미타(paramita)라고 한다. 이것을 한문으
로 음사해서 번역한 것이 바라밀(波羅蜜)이고 수행의 완성,
완전한 성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라밀중에는 초기불
교의 팔정도에 비견될 수 있는 육바라밀이 대표적이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다. 보시
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보시에는 험뽀하고 굶
주린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財布施),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법보시(法布施), 두려워
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무위시(施無畏)의
세종류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이든 그것이 바라밀인 이상 완전한 수행, 완전한
성취로서의 보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완전한 열반에
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보시란
베푸는 자도 베푸는 받는 자도 베푸는 내용도 없는 보시를
말한다. 무아와 무상의 진리가 적용된 보시야말로 이미 완
성된 깨달음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이다. 지계란 수행자로
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초기불교의 계율
정신에 기반하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
을 이익 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이다. 인욕은 참고 인
내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 핍박에 대
해서조차 중요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경지
의 인내심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근원적
으로 미워하지 않고 설령 화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상대를
위한 성명어야 하는 게 인욕바라밀이다. 초기불교에도 인
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승불교에서처럼 중
요하게 여겨지는 않았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이다. 정진은 팔정도의
정정진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정진바라밀도 정진
에 나선 용맹무쌍한 병사처럼 물러섬이 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정진에는 번뇌라고 하는 적을 무찔러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열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큰 용
기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이다. 선정 또한 팔
정도의 정정과 동일한 의미이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정이 단
지 정신을 통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순간
의 집중된 마음상태는 매순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지혜
가 없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오히려 매순간의 지혜의 작용이야말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이다. 지혜바라밀은
말 그대로 분별과 집착을 떠난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 육바
라밀 전체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바라밀이며 공(空), 무아
(無我)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를 갖추
지 않고서는 배후라고 하는 집착이 없는 무주상보시(無住
相布施)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윤리도덕으로서의 지계도
그 외의 다른 바라밀도 모두 가능하지 않다.

육바라밀은 이와 같이 팔정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
도 다른 사람을 위한 수행의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대승불교
의 보살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별차 사정오 연재를 마칩니다>
日 용곡대 불교학사 · 前 본지기자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수행의 길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랑계
 - ◆ 49제, 천도의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나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종중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 정	기 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 교 학 과	1 학년	불교입문, 부처님상에 대한승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학)
	2 학년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선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 지필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통사 : 02.336.2052 봉천동 명림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심통사 : 02.496.3803 성 남 화상사 : 031.745.1482 일 산 화상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상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신 월광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성각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